

# 문화의 교류, 한국에서의 외국건축 - 01

## Exchange of Cultures : Foreign Architecture in Korea

Special Series

01\_ 연재를 시작하며 ..... 박길룡 /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02\_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 윤인석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1 양풍건축의 이입

    2-2 일제강점기 서양건축가의 활동

    2-3 압제자의 건축

03\_ 한국의 근대건축과 외국 건축 ..... 안창모 /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3-1 전후 복구기 원조경제와 외국건축

    3-2 경제개발과 외국건축

    3-3 타자를 위한 건축과 우리건축의 모습

    3-4 세계를 향한 눈

04- 단편(斷片)적 도시경관의 고고학 ..... 구영민 /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4-1 수직의 욕망

    4-2 애브뉴 오브 아메리카

    4-3 패션게임 - 소비의 사막

# 연재를 시작하며

박길룡 /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Park Gil-ryong

모든 문화의 속성이 그러하듯 건축도 자발성과 타율성, 독자성과 이종성,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끊임없이 작동시키며 진화한다.

독존적인 환경에서는 개별성을 유지하려는 힘에 지배되고 그에 상대하여 보다 풍부한 시야를 잃는다. 주체의 의식 없이 정체성이 그려지지 않으나 밖으로 접촉 없이는 근친상간만이 거듭될 것이다. 그렇게 문화는 유전적 성질과 꼭 같아서 종의 보존과 집종강세의 논리가 함께 있다.

건축은 그를 이루는 여러 가지 지적 수준, 문화, 기술적 성취, 사회적 인자들의 현상에서 내부적으로는 보다 긴밀한 통합성에 있어야 하며, 외연적으로는 지역성과 세계성의 교환관계를 벗어 날 수 없다. 생물의 보전성에서 개체의 다양성이 중요하듯이 문화의 종은 보다 풍부한 안-밖의 관계 구조에서 거두어지는 다원성을 조건으로 한다. 물론 문화도 보다 강한 생존의 유전적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 '이기적 인 속성에 있고 양육강식이 작용한다.

외래종은 토종 생태의 파괴에 이르기에도 한다. 황소개구리가 그랬고, 비스듬이 그렇다. 아마 그들은 보다 강력한 유전적 힘을 가지고 이기심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인위적으로 그 생태를 방어해 보려고 하나 한계가 있다. 아마 황소개구리는 토종 생태를 제압하고 나서 변종을 생성할 것이다. 건축도 토종의 외래적 변이 또는 외래종의 토종적 변이가 이루어진다.

그 사이에 토착 건축가들은 외래 건축가들에 대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견해도 없지 않으며, 대우의 불평등을 불평하는 소리도 있다. 우리의 피해 의식이다. 반면에 외래 건축가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거나 차이의 가치를 얻는 건축주도 있다. 우리의 성취감이다. 어떠한건 우리는 '여기의 그들'을 잘 가릴 일이 긴요하다.

한국의 근대 건축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수많은 이종의 유전자와 교합하며 모더니즘을 일구었고, 다윈의 시기를 겪었다. 이종을 받아들임은 스스로의 욕구이기도 하였지만 타율에 의한 수밖에 없기도 하였다. 타자적 시선에서 보습하던 경험도 있다. 여기에는 우리의 빈곤을 보충하며 영양이 되기도 하였고, 외제에 대한 맹목성도 없지 않다.

이 외래 건축 평전은 이와 같은 문화 교환의 가치관에서 지난 한 세기를 조명하는 뜻으로 시작된다.

여러 줄기의 물이 흘러 강에 모이듯이 문화는 혼성하는 생태로서 석이고 성질을 이루어 간다. 원의 종이 변태 또는 변이하여 진화하는데 여기에서 주입될 외래의 속성이 얼마나 건강한 것이냐가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여러 시대에 여러 나라에서 종의 변이가 일어났다. 인도의 베다 시대 BC.500~3000년 사이, 인도의 북부는 이집 문화의 통로가 된

다. 특히 아리아인의 유입, BC.518년부터 페르시아, BC.334년부터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이집 문화와 토착 문화의 융합이 그 후 간다라 양식의 중요한 인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삼국시대 '도래인(渡來人)'은 일본 문화의 동기가 된다. 이후 7~8세기의 아스카(飛鳥)문화를 이루며, 당과 불교문화에 의해 비로서 국가문화를 이루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에도(江戸) 문화에 송과 원의 영향 또는 모방은 훨씬 격조를 높이며 근대 문화로의 길을 단축시켰다. 일본도 서양에 대해 눈을 크게 뜨던 16세기 덴분(天文)과 17세기 간에이(寬永) 시대의 쇠국정책의 문화는 차이가 있다.

4세기 이후 로마에서 동진(東進)한 비잔틴 문화가 그랬고, 비잔틴은 다시 오스만 튀르크에게 유전적인 성질을 전한다. 오스만 튀르크는 콘스탄티노플에 들기 전 까지 아랍 문화의 한 지류였다. 1453년, 오스만 튀르크가 동로마를 제압하고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 목도한 하기가 소피아는 종교적 이념을 넘어 커다란 경이의 경험이었다. 문화적 충격에서 술탄은 이 이교(異敎)의 문화, 비잔틴의 건축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궁정 건축가 K.시난은 비잔틴을 텍스트로 하는 오스만 튀르크식 모스크의 전형을 만들고, 이것이 중세 이후 아랍에 전파된다.

스페인의 문화 지도에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섞여 그려진다. 7세기 경 이슬람은 북아프리카를 서진(西進)하여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고, 계속하여 이베리아 반도를 복상한다. 이베리아 중부까지 진전된 이슬람은 8세기 경에 정착되며, 세비아, 코르도바, 그라나다, 톨레도, 발렌시아 등의 도시문화를 구축한다. 초기 기독교 문화에 이슬람이 덧칠해지는 것이다. 8세기 이후 15



조선은행 / 京城 / 1912 / 다쓰노 킨고 辰野金吾 사적280호 / 한국은행 본점

세기까지 근 700년 동안 프랑크가 힘을 더하는 기독교 탈환 운동(Reconquista)에 의해 이슬람이 밀려나가는 자리를 다시 기독교 문화가 치환한다. 이렇게 밀물 썰물의 과정에서 잔존된 성질이 새 문화와 경영되는 혼성 문화가 무데하르(Mudejar)이다. 무데하르는 곧 '잔류자'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이 에스파냐의 건축을 유럽 건축과도 구분케 하는 특별함이 된다.

동남 아시아는 지형학적으로 토착 문화와 중국 문화가 혼성될 개연성에 있다. 말레이시아의 토착 건축이 도시화 되면서 중국식 도시 건축의 구조와 합성되는데, 그것이 바바노니아이다.

일본의 현재적 존재감은 원천적으로 명치유신(明治維新)에서 시작된다. 서양의 문물과 일본적 정신, 화-양(和-洋)의 결합이 일본을 제국의 반열에 들게 한다. 조선의 쇠국(鎖國)이라는 정체성 수비와 극명히 대비되는 대목이다.

폐쇄된 국면에서 갑자기 열린 문 뒤에는 경이로운 문물들이 있었다. 아직 혼을 실기 전에 쏟아져 들어오는 문물은 정신을 빼앗는다. 주는 사람조차 제대로 주는지 모르니 받는 입장이야 무엇을 받는지조차 가늠지 못한다. 그렇게 한국의 근대화는 서양화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집중강세의 교훈은 21세기까지도 여전하다.

외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문화 자신만이 홀로 할 수 없다. 건축의 문화 교환도 동시대의 정치 사회적인 환경에 지배된다. 특히 근대 초기에 우리는 근대성에 대한 성찰보다는 타율에 의한 양식의 수용으로 서양화를 배웠다. 그것은 구한말까지 폐쇄된 국제 정치의 이유이며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여 오던 편협한 사회 문화 때문이다.

동시대 일본의 사회구조 역시 근대성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채 스스로 또는 타율로 서양식을 근대식과 혼동하였다. 그 하수(下手)에 있던 한국 건축이 정치 사회적인 한계에서 그 이상(以上)일 수 없는 것이다. 식민지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정합성을 판단할 스스로의 능력이 결여 되어 있는 것이다.

E.코스트 신부가 종현성당을 짓는 일은 건축문화의 뜻보다도 선교에 목적한다. 한성에 영국공사관을 짓는 일은 외교적인 일이다. 다분히 식민지 양식이 개연적인 일이다. 일본이 총독부 청사를 그렇게 장려한 르네상스로서 짓는 일은 내선일체(內鮮一體)의 목적이 가능하게 한다.

근대 건축을 두고 말할 때, 한국의 건축은 사실상 전적으로 외래이며 시행자는 모두가 외국 건축가였다. 한일합방 이후 이 '모두'는 '일본 건축가'가 된다. 최소한 박길용(1898~1943)의 한국 건축가 인맥이 형성되기 이전까지 한국은 '그들의 여기'였다.

해방 공간에서 한국 건축은 비로소 스스로 문화를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가지나 이번에는 수단이 여의치 못하다. 기술과 경제에서 그러하지 못하다. 근대적 성과로서 제한적인 성과들이 없지 않으나 진정한 근대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래의 기술을 보습(補鑿)하여야 한다. 해방 공간에서 6.25.동안 후까지 한국의 근대성은 기술과 경제가 따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기술과 경제의 결핍, 곧 기술 지원과 경제 원조는 한동안 새로운 경험을 위해 한 통의 수단이었다. UNDP, ICA, UNKRA, CRİK 등 처럼



USOM 청사 / 경제기획원 청사 / 서울 / 1960-61 / P.A.E. 설계



정부총합청사 / 서울 / 1967 / PA & E

경제 원조단과 건축 엔지니어가 한 세트로 들어 왔다.

북한의 사정을 접어 두고 말한다면, 한국이 의존할 수 있었던 외래 문화의 자장(磁場)은 미국과 일본 정도를 범위로 한다. 미국은 아직도 지리적으로 멀다. 그 시기에서 거리가 멀다는 것은 제한된 정보 교류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해가 멀다는 것과 같다. 또한 일본은 지척에 있지만 우리 자신이 의식적으로 시선을 달고 있어야 했다.

이승만 정권 동안 친일은 여전히 국가 배신이다. 그러니까 문화가 아무리 유동적인 생태 속성에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이념을 넘을 수 없다. 틈틈이 일본의 건축학술 관계자들이 들르기는 해도 건축가의 교환은 '사회적으로' 제한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메타볼리즘과 일본 2세대 건축의 한국 침잠(沈潛)은 사람들이 듣는 것 이상의 효과로 진행된다. 대체로 일본 성과 근대성의 결합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던 시기로서 한국 건축이 전통을 찾던 언저리의 일이다.

5.16 혁명 이후 건설 드라이브 시기,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함께 들어온다. 특히 일본의 상업 투자는 여러 호텔 건축에서 수지를 맞춘다. 호텔의 프로그래밍과 건축술이 국산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1970년대, 경제 부흥과 함께 건설에 드라이브가 걸리며, 사회기간시설, 대형 공공시설에 일이 많아졌다. 무엇보다 중동에 건설 수출이 건축 경기

에 윤기를 더하였다. 중동의 건설 수출은 주로 공공시설 공사와 플랜트 건설이 주로 이루어지지만 선진국과 시공기술을 겨루면서 건축 기술도 신장 되었을 것이다.

1975년 김수근의 Ekbatan, 1976년 Alborz 주거단지 설계는 아마 우리가 처음 이루어 본 설계 수출일 것이다. 그러나 건설과 설계가 연속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며 설계 무역은 수지를 맞추지 못한다. 외국 건축가의 효용이 프로그램과 기획 능력으로 긴요해지는 시기, 한국이 한창 개발 프로젝트가 흥성할 1980년대이다. 대형 조직으로 프로젝트의 종합적 접근이 미숙한 건축가들이 개연적으로 외국의 대형 사무소에 손을 내민다.

한국은 1986년이 되어서야 아간통금을 해제하였다. 서울 올림픽의 성과는 무엇보다 열어야 지킨다는 것, 나누어야 커진다는 사실을 체득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건축가의 교류는 1980년대가 되면서 개방사회가 가능하게 한다. 많은 재외 한국인 건축가들이 귀향하는 일도 이 시기에 활발하여진다. 역시 경제적 여유를 타고 흡입되는 물줄기가 다채로워지는 것이다.

1997년 IMF 관리 체제에 들어서기 전까지 한국 건축은 이상한 호황에 들어 있었다. 넘치는 자원(사실은 거품), 비상한 개발 의지(사실은 투기),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유연해진 시선(사실은 허상)이 한꺼번에 일구어진다.

그 사이에 외래 건축가는 선진 건축가라는 가치 지수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저울을 벗어난다. 맹목적이기도 하고 그럴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하다보면 시저 펠리가 교보 빌딩을 짓고 하고, 도시의 원론적 이해조차 무색해진다. 우리 사회가 사시(餘視)를 던져 보았자 건축주는 막무가내이다.

건축 설계를 하나의 무역 경제로 놓고 본다면, 2004년도 한국의 총 무역 수지(수출 약 2542억 달러 / 수입 약 2245억 달러 / 무역수지 297억 5000만 달러 흑자)에 비교하여, 건축설계는 영 미지는 장사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 동안 한국 사회가 경제와 문화의 균형 있는 경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한국 건축이 세계성에서 밀돌고 있다는 증명이 다. 그것은 경제 비용의 적자 문제만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한국 건축 문화의 위상을 지표 하는 것이다. 한국은 장사 수완보다 건축 재주가 아주 못하거나, 기술로는 돈을 벌어도 설계로는 아직 멀었다.

정보의 시대는 더 이상 지리적 거리나 사람이 직접 왔다 갔다 할 일보다 외래 영향을 확장한다. 램 콜하스가 오지 않아도 학생들은 알아서 건축을 접는다. 물론 그가 와서 좀 더 자신의 건축을 간곡히 말할 때 효과는 극대화 된다. 그 사이에 한국적 외래 스타도 형성된다. 마리오 보타, 안도 다다오, 도요 이토 등이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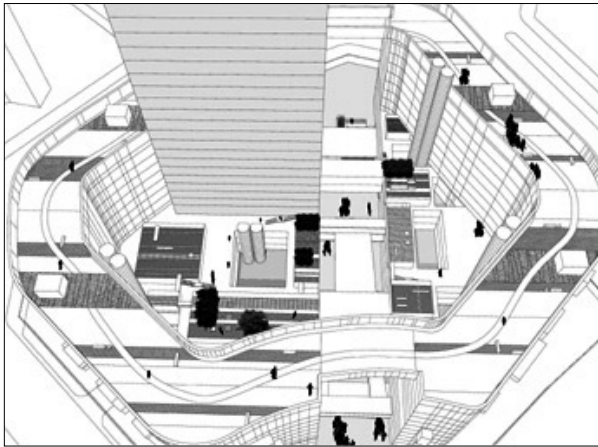
국제설계경기에서 외국 건축가의 도래는 훨씬 자연스럽다. 물론 굵직한 국제경기, 올림픽선수촌, 국립중앙박물관, 광주 문화의 전당 등은 공공롭게도 미국적 한국 건축가 또는 한국적 미국 건축가에게 돌아간다. 모양으로



국제센터빌딩 / 서울 / 1983-84 / CRS+동해건축



교보빌딩 / 서울 / 1978-83 / Caesar Pelli, 엄이건축



송효상 / Chaowai SOHO Office / 베이징 / 2004

다. 우리의 보충성으로 작용할 문화는 넓고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이것을 서로 전하려고 사람들이 오간다. 건축도 그의 대안을 국제 콩쿠르로 얻으려는 뜻이 그러하며, 중요한 과제에서는 외국 건축가를 불러들이는 버릇도 그러하다.

이번 기획 연재는 한국 건축의 100년 동안 경험한 문화 도래 또는 교환의 사실이지만, 원천적인 목적은 교제 이후에 벌어지는 집중강세의 법리를 실증할 일이다. ㉞

는 한국적이나 국제적일 수도 있는 선택이다. 물론 이러한 선택 대해 바로 그름을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심사를 주도하게 마련인 한국 건축계는 익숙한 문화, 익숙한 조형에 팔이 굽는다.

타자성, 안과 밖의 관계에서 우리의 문화 태도에는 여전히 그리고 다분히 이중성이 있다. 자기를 주인 되게 하기에 익숙함 그리고 타자적 시선에 대한 염려가 같이 있다. 우리가 갖는 그들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세계적 보편성에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갖는 우월성은 무엇인가.

외래가 외연에 머물 때, 타자로서 가치될 때, 존재감에서는 문화의 패치 이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이 다른가는 서로의 보충성으로 작용할 때, 종의 다원성으로 효용된다. 우리가 외래에서 기대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차이의 가치 때문이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의 차이 때문이며 한 사회가 가지고 있다는 풍요로움은 많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어떠하든 외래로부터의 지식, 기술, 사념은 우리를 풍부하게 할 자산이



리움 / 서울 / 마리오 보타 / 장누벨 / 램 콜라스 / 2005